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2년
3월 19일
(월요일)

강북신문 3면

강북구의회는 3월13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열린 제15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강북구의회, 제158회 임시회 폐회

13일, 의원발의 등 안건처리후 7일간 일정 마무리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3월1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열린 제15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특히 이날 처리된 6건의 조례안 중 5건이 의원 발의로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다.

주요처리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성열)에서 강동구 암사동 서원마을을 방문하여 휴먼타운 시범사업 추진현황 등을 살펴보는 등 강북구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북일보 7면

강북구의회 제158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6건의 조례안 중 5건이 의원 발의로 이루어져 눈길을 끌어

▲강북구의회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 유군성 의장

강북구의회 (의장 유군성)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열린 제15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다. 특히 이날 처리된 6건의 조례안 중 5건이 의원 발의로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다.

주요처리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등을 처리하였다.

또한, 지난 12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열)는 현장 활동으로 강동구 암사동 서원마을을 방문하여 휴먼타운 시범사업 추진현황 등을 살펴보고 강북의 실정에 적합한지를 의논하는 등 강북구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최동수 기자 cdsoo12000@hanmail.net〉

서울포스트신문 5면

강북구의회, 제158회 임시회 폐회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2012년 3월 1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열린 제15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특히 이날 처리된 6건의 조례안 중 5건이 의원 발의로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다.

주요처리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성열)에서 강동구 암사동 서원마을을 방문하여 휴먼타운 시범사업 추진현황 등을 살펴보는 등 강북구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포스트신문 2면

강북구의회 서원마을 현장방문 활동

환경친화적인 강동구 서원마을 강북구 접목지역 연구 과제

지난 12일 서원마을 현장방문에 나선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을 비롯한 박성열 위원장 강남연 이종순 구본승 이백균의원이 강동구의회 성임제 의장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성열)는 지난 12일 소통과 나눔으로 주민과 더불어 실현한 서울휴먼타운 서원마을을 방문했다.

서원마을은 1970년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오다가 2009년 2월 취락지구로 지정된 단독주택지로, 전원형 주택지 보존을 위한 강동구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의 높은 호응으로 서울휴먼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곳이다.

이날 서원마을 마을회관 2층에서 가진 설명회서 강동구의회 성임제 의장은 "암사동 서원마을은 64동 156세대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소통과 나눔, 정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마을로, 서울을 대표하는 휴먼타운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했다.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은 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환대해 주신 성임제 의장과 구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가진 현장답사는 강북구와의 밴치마킹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성열 위원장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참석한 마을 주민 대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지역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층수를 제한에 많은 고민을 했고 결국 2층으로 제한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유군성 의장, 박성열 위원장을 비롯한 박성열 이종순 강남연 구본승 이백균의원은 강동구에서 준비한 동영상 자료 설명에 눈과 귀를 기울였다.

암사동 102-4번지 일대에 조성된 휴먼타운 서원마을(32,800㎡)은 자연·역사 문화와 조화를 이룬 외적환경과 주민간 소통(Communication), 친환경(Green-Zone), 여성과 노약자를 배려한 안전(Safety) 중심의 신 개념 저층 주거지로 총 사업비 36억 3천만원으로 조성되었다.

현장방문을 마친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낡고 오래된 폐쇄형 담장을 허물어 이웃간 소통과 나눔의 공간으로 꾸민 개방형 담장과 녹색주차장 설치로 자동차가 사라진 골목과 조경 등 환경정비 사업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여성과 노약자가 마음 놓고 활보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을"이라며 "강북구에도 접목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 주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자"고 했다.

서울포스트신문 5면

● 강북구의회 소식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강북구의회 김용욱 의원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저조한 국내입양을 촉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김용욱 의원(강북구의회 부의장)이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는 1명당 120만원의 입양축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용욱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이 많은 이유는 입양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인 정비가 아직 부족했기 때문이다."며 "입양 문제는 이제 개인 차원의 접근보다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입법 목적을 밝혔다.

강북신문 5면

"국내입양 촉진위해 축하금 지원을"

김용욱 의원, 입양축하금 지원조례 발의해 통과시켜

국내입양 촉진을 위해 축하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한 김용욱 의원(사진 맨 왼쪽).

강북구의회 김용욱 의원(강북구의회 부의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13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저조한 국내입양을 촉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는 1명당 120만원의 입양축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용욱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이 많은 이유는 입양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인 정비가 아직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입양 문제는 이제 개인 차원의 접근보다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입법 목적을 밝혔다.

동북일보 7면

입양의 인식 개선 및 저조한 국내입양 촉진 활성화

김용욱 의원, 입양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지난 13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저조한 국내입양을 촉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김용욱 의원(강북구의회 부의장)이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60만 원, 장애아동인 경우는 1명당 120만 원의 입양축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용욱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이 많은 이유는 입양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인 정비가 아직 부족했기 때문이다"며 "입양 문제는 이제 개인 차원의 접근보다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입법 목적을 밝혔다.

〈최동수 기자 cdsoo12000@hanmail.net.

서울포스트신문 4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관련 조례안 발의

강북구의회 이종순 의원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자살예방 지원근거마련을 위해 이종순 의원(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위원회를 설치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종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구 차원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체계가 수립되어 자살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경제적인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다."고 조례안 발의 목적을 밝혔다.

강북신문 5면

자살예방 위한 조례 발의해 통과

이종순 의원, 자살예방지원계획 매년 수립 등 내용 담겨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한 이종순 의원.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종순 의원(새누리당)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자살예방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이 조례는 13일 오전 10시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종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구 차원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체계가 수립되어 자살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경제적인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일보 7면

구 차원의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과 지원체계 수립

이종순 의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관련 조례안 발의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자살예방 지원근거마련을 위해 이종순 의원(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위원회를 설치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종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구 차원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체계가 수립되어 자살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경제적인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다"고 조례안 발의 목적을 밝혔다. 〈최동수 기자 cdsoo12000@hanmail.net〉

서울포스트신문 4면

● 강북구의회 소식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강북구의회 이순영 의원

강북구의회 이순영 의원(행정보건위원회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오전 10시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번에 가결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1개 조항으로 ▲강북구청장은 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노력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등에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순영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는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 되어 가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로 급속한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효경중심의 미풍양속은 점점 후퇴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전통 미덕인 효 사상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된다."면서 조례를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강북신문 5면

효행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이순영 의원, 효행장려사업 수행 단체에 예산지원도

이순영 의원.

강북구의회 이순영 의원(행정보건위원회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오전 10시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에 가결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1개 조항으로 강북구청장은 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등에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한편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순영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는 핵가족화 되어 가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로 급속한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효경중심의 미풍양속은 점점 후퇴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전통 미덕인 효 사상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동북일보 7면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의 장려와 효행 지원

이순영 의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강북구의회 이순영 의원(행정보건위원회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번에 가결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1개 조항으로 ▲강북구청장은 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노력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등에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순영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는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 되어 가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로 급속한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효경중심의 미풍양속은 점점 후퇴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전통 미덕인 효 사상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된다"면서 조례를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최동수 기자 cdsoo12000@hanmail.net〉